

“시대변화 반영 학급당 학생수 줄여야...16~20명 적정”

교원단체 “방역 관리·원격 수업 효율성 위해 정원 감축해야” 주장 전교조 ‘20명 상한제’ 추진...시민단체 “e학습터 개선 근본 대책”

‘코로나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방역관리와 수업의 효율성 향상, 나아가 학생 생활 지도·관리를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와 교육단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초 질의·응답식 수업과 학생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상한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설정 기초연구’를 위해 지난해 10월21~28일 7일간 광주지역 113개 초·중·고교 1440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6~20명이 가장 적정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지난해 22.42명에서 22.09명으로 줄었다. 이는 학급당 25명인 기준치보다 3명 가량 적은 것이다. 반면 중학교는 지난해 24.15명에서 25.05명으로 증가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광주 초등 교원 39.9%(302명)와 35.1%(266명)는 강의식과 토의식 학습방법으로 가장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로 각각 ‘20명’을 꼽았다.

학생에게 발표와 질문할 기회를 주고 수준별 지도를 할 수 있는 적정 학생 수로는 응답자의 36.2%(274명)와 57.5%(435명)가 ‘15명 이하’라고 답했다.

초등 교원 35.5%(269명)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적절한 학년 당 학급규모는 4학급이라고 응답했다. 6학급(190명 25.1%)이라는 응답이 뒤

를 이었다.

중등 교원의 인식도 초등 교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 교실공간에서 학생들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묻는 질문에 교원 50.4%(344명)가 20명을 꼽았다. ‘학생에게 발표와 질문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장 적정한 학생 수’도 교원 40.8%(279명)가 ‘20명’이라고 답했다.

‘수준별 학습지도’와 ‘진로·진학상담’에 가장 적정한 학생 수로는 교원 54.8%(374명)와 45.8%(313명)가 각각 ‘15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교육과정 운영에 가장 적절한 학년 당 학급 수는 중학교 교원 34.3%(234명)가 ‘6학급’을 꼽았고 ‘5학급’(131명 19.2%)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주장에 힘을 실고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전남 등 ‘작은학교’가 많은 지역이 거리두기 방역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원격수업 과정에서 학생수가 적은 ‘소학급’이 쌍방향수업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급당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는 올해 안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시민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격수업의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급당 정원 감축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은 데다가 준비시간에 여유가 있었는데도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EBS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이용에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은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데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5·18 민주광장 봄맞이 대청소 광주 동구청 직원들과 청소년봉사자, 주민 등이 18일 오전 5·18 민주광장과 분수대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4년 만에 또 인공위성 발사

20일 카자흐스탄서... ‘차중위성1호’ 연소 실험·생물 육성 실험 수행

2017년 호남대 대학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조선대학교가 새로운 인공위성을 개발, 오는 20일 카자흐스탄에서 발사한다.

18일 조선대학교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차세대 중형 위성(차중위성) 1호가 오는 20일 오후 3시17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소유즈 2.1a 발사체에 실려 550km 상공 우주로 떠난다.

차중위성 1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상관측·도시계획·지도제작 등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 개발한 차세대 위성이다. 소유즈 2.1a호에는 차중위성 1호 이외에 여러 나라에서 모인 위성 37개가 함께 실린다.

조선대·연세대 KMSL(Korea Micro Gravity Science Lab)도 이종 하나다. KMSL팀은 조선대 지능형 열 시스템 설계 실험실과 전력 전자·에너지 변환 실험실·연세대학교 분자 세포 생물학 실험실이 협력, 위성을 개발한 연합팀이다.

KMSL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2017 큐브위성 경

연대회’에서 개발팀으로 선정됐다. 큐브위성은 가로·세로·높이 각각 10cm 규격의 정육면체를 기본 단위(1U)로 하는 초소형 위성으로 지구·우주 관측, 우주환경 실험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조선대·연세대 연합팀이 만든 KMSL은 3U 크기로 제작된 큐브위성이다.

1U는 고품질 생물육성실험, 2U는 화염전파실험 용도로 구성돼 있다. KMSL 큐브위성은 우주 환경에서 연소 실험과 생물 육성 실험과 같은 과학 임무를 수행한다. 첫 번째 임무는 유인 우주선의 선실환경에서 발생한 화염의 전파와 소멸 현상 분석이며, 두 번째 과학 임무는 마이크로 중력 환경에서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는 ‘곰벌레’(물곰·Tardigrade)의 생존율과 생활사를 관찰하는 것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노조와 갈등’ 김기선 광주과기원 총장 사의 표명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김기선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스트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장과 부총장단이 최근 논란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스트 구성원 간 서로 화합해 기관 본연의 목적인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연구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앞서 지스트 노조는 “김기선 총장이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받았다”며 총장으로서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받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 직원 223명(휴직자 17명 포함) 중 176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 총장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20점을 받았으며 총장 사퇴를 주장했다.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당분간 지스트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 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스트 관계자는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개최해 총장을 선임한 뒤 과기정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총장이 임명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의 당초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였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목포대, 고용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선정

목포대학교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1년 3월 시작해 2026년 2월까지 5년간으로, 매년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발굴, 취업알선 등 맞춤형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목포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청년특화 통합상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동우 학생처장은 “목포대 학생과 지역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는 2015년부터 ‘대학일자리센터’를 개소하여 진로·취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 서부권 지역의 대표 대학으로서 청년고용정책의 핵심 전달체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대광새마을금고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